

유흥업소 종업원에 대한 사회의학적 조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지도: 황 인 담 부교수>

유 영 준

—Abstract—

Socio-medical Survey on the Entertainment Workers in Jeonju Area

Yu, Young Joon, M.D.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Assoc. prof. Hwang, In Dam, M.D., Ph. D)

The author has conducted survey on the socio-medical status of the 157 entertainers (male:25, female:132) in Jeonju area, during 1 to 15 July 1974.

As results of this survey,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1. The age distribution was revealed the peak in the age group of 20 to 24 years with 44.5 per cent. Average age of male entertainers was 28.0 years and female entertainer with 23.9 years.
2. By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entertainers, the greatest proportion or 45.9 per cent was middle school, 28.7 per cent in primary school.
3. Most of the entertainers had no their parents, father or mother while the ones who had parents were 21.0 per cent.
4. The average age of menses of the female entertainers was 14.2 ± 0.87 years.
5. Regarding the marital status of the entertainers, the unmarried were 81.5 per cent and present status of marriage, 79.3 per cent were separated.
6. The average of the first marriage was 24.4 years in male, and 22.6 years in female.
7. Regarding the working duration of the entertainers, 79.1 per cent worked less than 1 year.
8. Regarding the sex experiences before marriage, 76.0 per cent of the male and 91.7 per cent of the female reported had such experiences.
9. Induced abortions were found to have been experienced 88.6 per cent of the female entertainers.
10. Point prevalence rate for gonorrhoea including non-specific urethritis of the entertainers were found 16.0 per cent of the male and 17.4 per cent of the female.

I. 서 론

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接客업소 중 특히 유흥업소 종업원들로부터 발생될수 있는 각종 사회악 및 공중보건의 문제점은 공중보건 관리상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보건행정의 정책수립 및 그 수행을 위한 기초적 조사연구는 그간 尹, 李, 柳, 李, 朱, 金, 成, 洪, 金, 任, 韓^{2) 1) 3) 5) 6) 7) 7) 4) 9) 10) 11)} 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으며, 변모하는 사회구조에 따라 그 성상도 변천할 것이다.

타직종에 비해 전퇴직율이 높은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인적 및 사회경제배경과 보건적인 제반 특성의 파악은 각종 사회의학적 문제해결의 단서가 될 것이다.

특히 이들은 조사성적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안정한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건강상태에서 유리된 집단임에 비추어, 그 관리대책을 위한 조사연구는 매우 의의 있는 일이며, 본조사연구보고가 사계에 일조가 되길 바란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본조사대상인接客업소중 유흥업소는 제1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점 식당 다방 및 유흥음식점이 711개소로서 총종업원은 2,765명이었다.

제 1 표 전주시 식품接客업소수 및 종업원수 (1974. 6. 1)

	주점	식당	다방	유흥음식점	계
업 소 수 (%)	35 (4.9)	562 (79.1)	97 (13.6)	17 (2.4)	711 (100.0)
종업원 수 (%)	107 (3.9)	1,798 (65.0)	675 (24.4)	185 (6.7)	2,765 (100.0)

제 2 표 조 사 대 상

성 별	종업원수	응답자(%)
남	38	25(65.8)
여	147	132(89.8)
계	185	157(84.9)

한편 본조사대상인 유흥업소는 17개소 남자의 종업원 38명, 여자 147명 계 185명으로서 본조사에 응답한 자는 남자 25명(65.3%), 여자 132명(89.8%) 계 157명(84.9%)이었다 (제2표 참조).

2. 조사방법

본조사는 1974년 7월 1일부터 동년 7월 15일까지 15일간 준비된 설문지에 의해 훈련된 보건소 요원을 동원 문답식으로 조사 기록토록 하였으며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무기명으로 하였다.

III. 조사성적 및 고안

1. 사회경제 적 배경

1)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제3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세군이 44.5%로 가장 많으며 25~29세군이 31.9%로 20대가 76.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 3 표 응 답 자 의 연 령 분 포

연 령 (세)	남 자		여 자		계	
	수	%	수	%	수	%
~19	3	12.0	14	10.6	17	10.8
20~24	4	16.0	66	50.2	70	44.5
25~29	8	32.0	42	31.9	50	31.9
30~34	5	20.0	7	5.3	12	7.6
35~39	5	20.0	3	2.2	8	5.1
계	25	100.0	132	100.0	157	100.0

2) 교육정도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는 제4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조사에서는 해당 교육정도의 중퇴군을 포함시켜 집계한 바 중학교군이 전체의 45.9% (남자 48.0%, 여자 45.4%)로 가장 많았고, 국민학교군이 28.7%로 차위였다.

3) 가정환경

유흥업소 종사자 가정환경중 부모생존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제5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가 다같이 생존한 경우가 전체의 21%로 부모중 어느 한편이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가 전체조사대상자의 79%를 점하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제 4 표 교육 정도

교육정도	남 자		여 자		계	
	수	%	수	%	수	%
국민학교	10	40.0	35	26.5	45	28.7
중 학교	12	48.0	60	45.4	72	45.9
고등학교	3	12.0	33	25.1	36	22.9
대 학교	—		4	3.0	4	2.5
계	25	100.0	132	100.0	157	100.0

제 5 표 부모 생존여부

생존여부	남 자		여 자		계	
	수	%	수	%	수	%
부모생존	12	48.0	21	15.9	33	21.0
부 "	5	20.0	17	12.9	22	14.0
모 "	8	32.0	81	61.4	89	56.7
부모사망	—		13	9.8	13	8.3
계	25	100.0	132	100.0	157	100.0

2. 성에 관한 사항

1) 초조연령

유흥업소 종업원중 여자의 초조연령은 제6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세에 초조를 경험한 자가 62.9%, 15세에 경험한자가 15.2%, 13세에 경험한 자가 12.9%였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초조연령은 14.2±0.78로 추¹⁾에 의하면 15세에서 28.6%, 14세에서 27.8%로 평균 초조연령은 14.2세로 본조사와 같은 결과였다.

제 6 표 초 조 연 령

연 령 (세)	수		%	
	수	%	수	%
12	3	2.3		
13	17	12.9		
14	83	62.9		
15	20	15.2		
16	7	5.3		
17	3	2.3		
계	132	100.0		
평균초조연령	14. 2±0.78			

2) 자위행위

조사대상자의 자위행위 회수에 대하여 조사한 바 제7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1회가 2.6%, 주 2회가 12.7%로 가장 많았으나 대상자의 84.7%가 응답을 기피함으로써 본조사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조사사항은 조사원과 피조사자간에 발생하는 수치심때문에 응답을 기피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양의 조사는 별도로 자기식무기명조사에 의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제 7 표 자 위 행 위

회 수	남 자		여 자		계	
	수	%	수	%	수	%
주 1 회	1	4.0	3	2.3	4	2.6
주 2 회	13	52.0	7	5.3	20	12.7
불 응답	11	44.0	122	92.4	133	84.7
계	25	100.0	132	100.0	257	100.0

3. 결혼양상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결혼상태는 제8-1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혼이 81.5% 기혼이 18.5%로 대부분이 미혼자이었다.

한편 이들의 결혼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바 제8-2표에서와 같이 연애결혼이 75.8%, 중매결혼이 24.2%로 유흥업소 종업원의 결혼방법은 연애결혼이 훨씬 많았다.

또한 이들의 현재 동거여부는 제8-3표에서 보는 바와

제8-1표 결 혼 상 태

결혼상태	남 자		여 자		계	
	수	%	수	%	수	%
미 혼	18	72.0	110	83.3	128	81.5
기 혼	7	28.0	22	16.7	29	18.5
계	25	100.0	132	100.0	157	100.0

제8-2표 결 혼 방 법

결혼방법	남 자		여 자		계	
	수	%	수	%	수	%
연 애	6	85.7	16	72.7	22	75.8
중 매	1	14.3	6	27.3	7	24.2
계	7	100.0	22	100.0	29	100.0

같이 남자의 경우 동거가 57.1%로 동거하는 자가 많았고 여자의 경우 별거가 79.3%로 여자의 경우는 별거하는 자가 훨씬 많음은 유흥업소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다.

제8-3표 동 거 여 부

동거여부	남 자		여 자		계	
	수	%	수	%	수	%
동 거	4	57.1	2	9.1	6	20.7
별 거	3	42.9	20	90.9	23	79.3
계	7	100.0	22	100.0	29	100.0

4. 초혼연령

초혼연령은 제9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의 경우 25~26세가 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3세~24세(28.6%), 21~22세(14.3%)로 나타나며, 여자의 경우는 21~22세인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3~24세가 31.8%, 25~26세가 13.6%, 19~20세가 4.6% 순이었다.

평균초혼연령은 남자가 24.4세이며, 여자는 22.6세였다.

이는 李¹⁾에 의한 남자 24.2세, 여자 21.6세와 유사한 결과였다.

한편 高 & Smith²⁾에 의해 보고된 우리나라 평균결혼연령은 1968년에 남자 26.8세, 여자 23.0세로 본조사 대상자의 초혼연령은 다소 빠른 경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혼연령은 남자가 여자보다 늦은 초혼연령을 나타내고 있었다.

제9표 초 혼 연 령

연 령 (세)	남 자		여 자		계	
	수	%	수	%	수	%
19~20	—	—	1	4.6	1	3.3
21~22	1	14.3	11	50.0	12	41.3
23~24	2	28.6	7	31.8	9	31.3
25~26	4	57.1	3	13.6	7	24.1
계	7	100.0	22	100.0	29	100.0

5. 근무기간

근무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바 제10표와 같이 1년이하

가 59.1%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었으며, 2년이 25.3%, 6개월이 17.2%, 3년이 10.6%, 4년이 5.0%순으로 타 직업에 비해 전직 또 퇴직율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한편 이를 1964년 柳³⁾가 농촌접객업에 대한 사회의학적 조사연구에서 보고한 성적과 비교 고찰하면, 이미용업, 주점, 식당등 보다는 근무기간이 짧은 편이며 다방 종업원과 거의 유사한 근무기간임을 알 수 있다.

제10표 근 무 기 간

무기간	남 자		여 자		계	
	수	%	수	%	수	%
6개월이내	1	4.0	15	11.4	16	10.1
6 개 월	3	12.0	24	18.2	27	17.2
1 년	8	32.0	42	31.8	50	31.8
2 년	6	24.0	33	25.0	39	25.3
3 년	5	20.0	12	9.1	17	10.6
4 년	2	8.0	6	4.5	8	5.0
계	25	100.0	132	100.0	157	100.0

6. 혼전 성 경험

제11표와 같이 결혼전 성 경험은 전체 조사 대상자 중 10.1%인 16명 만이 혼전 성 경험이 없었고, 남자의 경우 21~22세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의 경우 19~20세가 43.1%로 가장 많았다.

첫 성 경험은 여자가 남자 보다 약간 빨랐고 특히 여자의 경우 15세 이하에서도 첫 성 경험을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은 특기 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특히 성별 혼전성경험은 남자 보다 여자가 훨씬 높은 율을 시현하고 있음은 사회적질환의 하나인 성병판리의 일면에서 좀더 구체적인 조사연구의 과제를 남긴다고 하겠다.

제11표 혼 전 성 경 험

연 령 (세)	남 자		여 자		계	
	수	%	수	%	수	%
~15	—	—	2	1.5	2	1.3
16~18	—	—	7	5.3	7	4.5
19~20	8	32.0	57	43.1	65	41.3
21~22	11	44.0	39	29.5	50	31.8
23~	—	—	17	12.9	17	10.8
없 음	6	24.0	10	8.3	16	10.1
계	25	100.0	132	100.0	157	100.0

7. 인공유산

유용업소 여자 종업원 중 인공유산에 관하여 조사한 제12표에서의와 같이 1회 인공유산을 경험한 자가 5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3,4회 순위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인공유산을 경험함으로써 차회임신에 대한 적극적으로 피임방법을 이용한 결과가 아닌가 사려되며 불응답자 중에는 인공유산 경험이 없는 자 또는 4회이상 인공유산을 경험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12표 인공유산

회	수	%
1	72	54.5
2	28	21.2
3	10	7.6
4	7	5.3
불응답	15	11.4
계	132	100.0

8. 성병감염상태

본조사기간 중 직접도말법 세균검사에 의한 임질 및 기타세균감염 상태는 제13표에 보는 바와 같다.

비임균을 포함한 양성율은 남녀 각각 16.0%, 17.4%로서 남자보다 여자가 다소 높은 울이며, 임균양성율은 3.2%(남자 4.0%, 여자 3.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¹¹⁾이 1972년 부평지역의 위안부에 의한 임균감염율 Speel; 15.5%, Person; 12.7%로서 본조사 비임균을 포함한 임균감염율 보다 낮은 성적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병이환율은 본조사 대상업소의 성격상 향후의 성병관리를 위해 좀더 철저한 즉 매독검사

제13표 성병감염상태

세균별	남자		여자		계	
	양성자	양성율	양성자	양성율	양성자	양성율
임균	1	4.0	4	3.0	5	3.2
연쇄상구균	—	—	9	6.8	9	5.7
포도상구균	3	12.0	7	5.3	10	6.4
대장균	—	—	3	2.3	3	1.9
계	4	16.0	23	17.4	27	17.2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선 보건소는 시설 및 인원확보를 하여야 하겠다.

IV. 요약 및 결론

1974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전주지역 유용업소 17개소, 종업원 157명(남자 25명, 여자 132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 및 성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조사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남자 28.0세, 여자 23.9세였다.
2. 교육정도는 남녀 공히 중학교군이 전체의 45.9%로 가장 많았다.
3. 가정환경은 부모 중 어느 한편이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79.0%를 점하고 있었다.
4. 조사대상자의 평균초조 연령은 14.2±0.87세였다.
5. 유용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미혼이 81.5%, 기혼이 18.5%를 보였다.

결혼방법은 역시 연애결혼이 75.8%로 많았다.

현재의 결혼상태는 여자의 경우 별거가 79.3%로 가장 많았다.

6. 초혼연령은 남자는 23~24세가 많았고 여자는 21~22세가 많았으며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24.4세, 여자 22.6세였다.
7. 근무기간에 관한 조사결과는 1년이하가 79.1%로 가장 많았다.
8. 혼전 성 경험은 남자 76.0%, 여자 91.7%가 있었다.
9. 인공유산은 1회가 54.5%, 2회 21.2%, 3회 7.6%, 4회 5.3%이었다.
10. 임질(비임균포함) 양성율은 남자 16.0% 여자 17.4%였다.

참고 문헌

1. 李 洛 灵：一部 都市 地域 接客業者들의 性과 關聯된 諸問題에 對한 調查研究, 公衆保健雜誌, 第七卷 第一號, 1970, pp. 439-448.
2. 尹 鍾 周：人口學, 韓日문고, 1973, p. 226.
3. 柳 光 模：農村 接客業에 對한 社會醫學的 調查研究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64, pp. 20-25
4. 洪 性 鳳：全國流産의 實態, 最新醫學社, 1972.
5. 李 龍 彦：婦女子月經에 對한 社會醫學的 調查, 서

- 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65.
6. 朱 雲鳳：一部地域 倫落女性에 關한 實態調查,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70.
7. 金 元坤：中高等學校에 있어서 性教育問題에 關한 調查研究 公衆保健雜誌 第六卷 第一號 1969.
8. 成 榮子：慰安婦에 對한 社會醫學的 調查研究,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66
9. 金 賢壽：一部 都市地域 未婚女性の 月經에 關한 調查, 公衆保健雜誌, 第七卷, 第一號, 1970, pp. 439-448
10. 任 在恩：韓國婦人의 人工流產現況 및 推移에 關한 研究, 公衆保健雜誌, 第七卷, 第一號 1970, pp. 542-551
11. 韓 榮：特殊地域 慰安婦의 實態 및 性病 罹患에 關한 調查研究, 公衆保健雜誌, 第十卷, 第二號, 1973, pp. 227-236.
12. 高 甲錫 & Smith：1968年 韓國婦人의 出産力 및 家族計劃 實態 調查 報告書, 1970, p. 32
-